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4개 중 3.5개 충족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지난주 달성 환자 발생 안정, 의료 대응 역량 기증 고위험군 면역 중 감염 취약시설 실현 60대 이상 고령층 접종률 획득만 남아 “달성 지표 많아질수록 영향 미칠 것”

정부가 제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 4개 중 3개를 충족하게 되면서 설 연휴를 전후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8~14일) 재원 중인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3665명, 일평균 523.6명이

환자 수는 4179명, 하루 평균 597명이었는데 두 수치 모두 전주 대비 감소했다. 사망자 수의 경우 14일 기준 주간 일평균 50명, 인구 10만명당 치명률은 0.1%다. 이로써 정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 중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지표를 달성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

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는 2주 연속 신규 확진자 수 감소,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는 각각 전주 대비 위중증 환자 수 감소와 주간 치명률 0.1% 이하가 기준이다.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은 4주 이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50% 이상이면 된다. 고위험군 면역은 동절기 접종률 기준 고령층 50%, 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이다. 이중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지표는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하기 전부터도 달성을 한 상태였으며 환자 발생 안정화 지표는 2주 전부터 충족했다. 여기에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지표도 지난주를 기준으로 충족하면서 4개의 지표 중 3개를 달성하게 됐다. 남은 지표는 고위험군 면역 획득인

데 가장 최신 자료인 지난 13일 기준 동절기 접종률을 보면 감염취약시설 60.5%, 60세 이상은 33.7%로 감염취약시설 기준은 넘어섰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4개 지표, 6개 세부 항목 중 60세 이상 접종률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충족한 셈이다. 정부는 4개의 지표 중 2개를 달성하면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단 정부는 4개의 지표가 참고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달성하게 되는 지표가 많아질수록 관련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의료 대응 역량과 유행 상황, 두 가지를 보는 것인데 모두 2주 전부터 좋아지고 있었다”며 “충족하는 지표가 늘어날수록 마스크 논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순천경찰, 안심 치안 위한 설명절 특별 치안활동 전개

순천경찰서는 설 명절 기간에 집중되는 각종 사건·사고 등 민생침해 범죄예방을 위해 오는 11일~24일 14일간 설 명절 특별방범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나주경찰,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나주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이화영아원, 계산요양원, 금성원 3개소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했다. 나주=송준표기자



여수소방, 설 명절 따뜻한 행복 보따리 나눔

여수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와 소방발전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라면 달천마을을 찾아 따뜻한 사회복지기 조성과 나눔문화를 실천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여수=김현근기자



강진소방, 외국인 노동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강진소방서는 지난 9일 겨울철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소방, 2022년 화재구조·구급 총 6650건 출동

완도소방서는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했던 화재, 구조, 구급, 활동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주 동부소방, 학운방음터널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는 제2순환도로 학운방음터널(상행선)에서 차량화재를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12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빛속 눈물의 추모제...이태원 참사 유족 “경찰, 셀프수사 한계 보여줘”

대통령실 인근서 이태원참사 3차 시민추모제

이태원 참사 이후 세 번째 시민추모제에서 유가족과 시민들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결과를 ‘꼬리자르기식 수사’라고 규탄했다. 이종철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대책위)와 함께 개최한 이태원참사 3차 시민추모제에서 “특수본 수사 결과는 기존에 우려했던 것과 같이 뒷선에 대해 수사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셀프수사’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 목표를 정해놓고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수사를 하고 마무리했다”면서 “검찰의 본격적인 뒷선 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특수본은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경찰청 등 기관에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꼬리 자르기식’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책임이 있는 기관들에 구체적인 의무가 없고, ‘예측이 실패했을 뿐이니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면 된다’는 것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의 복잡성이 재난을 예방해야 하는 개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며 “더 큰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더 크게 처벌되는 것이 상상이 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철 대표는 다음 달 참사 100일 때 100만명의 시민이 추모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추모제는 겨울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속에 치러졌다. 빨간색 목도리를 두르고 흰색 비옷을 입고 참석한 유가족들은 다른 유가족들의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연신 눈물을 흘렸다. 159번째 희생자인 10대 고교생인 고 이재현(16)씨의 아버지도 이날 증언대에 섰다. 이씨 아버지는 “전 일주일 동안 밝은 모습으로 밥도 잘먹고 노래도 많이 부르고 게임도 재미있게 해서 이제 조금씩 예전으로 돌아오나 한구 안심했다”며 “그런데 그것이 친구한테 갈 결심을 하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랬다는 것을 알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던 이씨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와 함께 이태원에 갔던 다른 친구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씨는 참사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지난 3일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이씨를 159번째 희생자로 인정했다. 유가족 사이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날 경기침체 관련 언론의 질문에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아졌고 반도체 경기 하락, 이태

원 사태로 4분기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왔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표는 “바닥을 찍은 경기를 이태원에서 희생된 아이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를 이태원 사태로 언급하는 이 총재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죄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추모제가 이뤄지는 장소 바로 뒤편에서 보수 단체 회원들이 확산기를 이용해 맞불 집회를 벌였지만,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최이슬기자

“가뭇 심각 ‘완도·통영’에 먹는 물 기부해주세요”...오늘부터 실시

식수원이 부족한 전남 완도군과 경남 통영시에 먹는 물을 기부하는 대국민 캠페인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먹는 물 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가뭇의 심각성을 알리고 먹는 물 기부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남부 도서 지역은 극심한 가뭇으로 저수지·지하수·계곡수 등 식수원이 고갈돼 도읍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5073명이던 제한급수 인원은 올해 1만8814명으로 늘었다. 이 중 완도가 1만3355명, 통영이 2298명이다. 기부 대상 지역은 식수원이 가장 부족한 완도와 통영이다. 향후 가뭇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기부를 원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생수 또는 자체 생산하는 병수를 대상 지역에 직접 전달하면 된다. 유관기관 및 단체·기업 등과 연계해 합동 기부도 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은 적십자사(☎02-

3075-3749) 또는 재해구호협회(☎02-6269-9595)에 개별 연락해 기부금을 내면 된다. 기부 대상 지역은 지정할 수 있으며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기부 후에는 가뭇 극복 응원 메시지를 담은 1분 이내의 인증 사진·영상을 행안부로 제출하면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다. 캠페인은 제한 급수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된다. 한편 행안부는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뭇대책 전담조직(TF)’을 열어 가뭇 극복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광주·전남 등에 총 161억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교부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절감 목표 달성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환경부의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 참여도 독려 중이다. 지난 10일 기준 광주·전남 관할 시·군·구 13곳 중 8곳(고흥·보성·목포·담양·장성·영광·함평·광양)이 참여 중이며 나머지 5곳도 동참 예정에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설 앞두고 분주한 떡집 설 명절연휴를 한 주 앞둔 15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의 한 떡집에서 가래떡이 판매되고 있다.